

웹드라마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7

들어가며

09

양적분석

11

질적분석

18

나가며

20

모니터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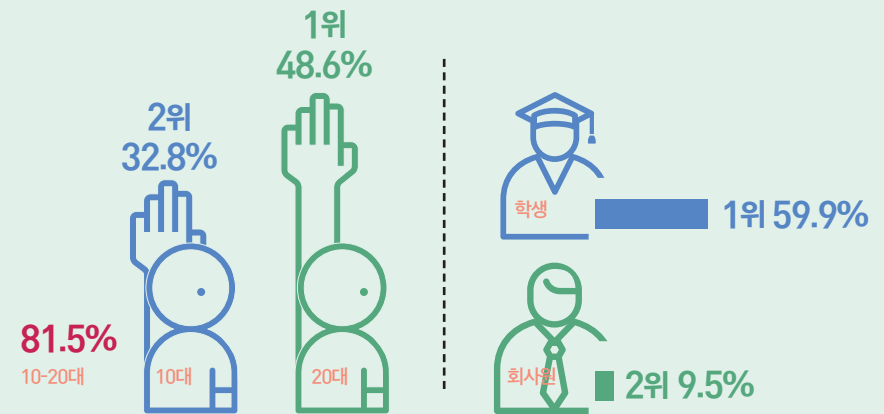
32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웹드라마 내용분석 보고서

모니터 장르	웹드라마
모니터링 기간	2019년 6월 1일 ~ 6월 8일(7일간)
모니터링 매체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프로그램 선정	2018년 이후 출시된 웹드라마 중 1화 조회수 기준 상위 30편
프로그램 수	30편
모니터 인원	11명

주요등장인물 연령/직업군



성평등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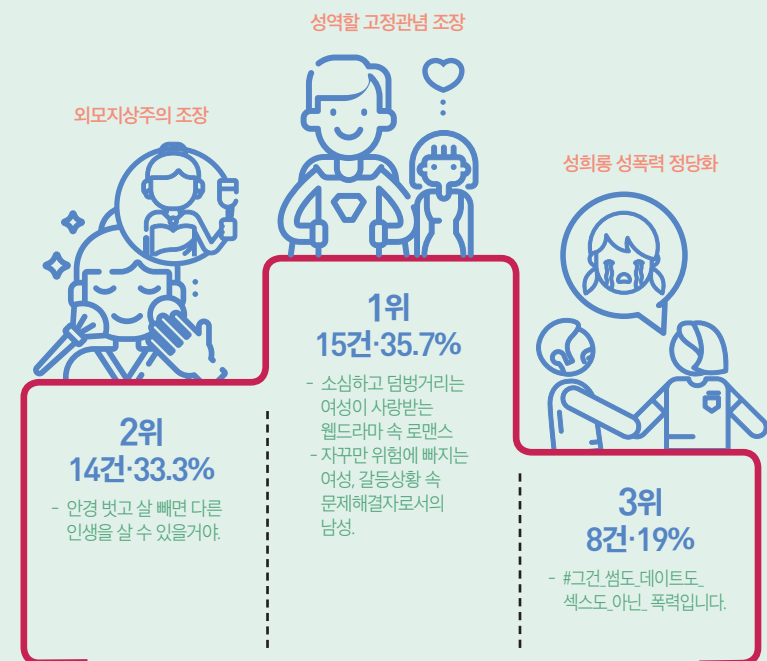
14건



성차별적 사례

42건

웹드라마 속 성차별



01 들어가며

오늘날 디지털 문화의 진전으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에서 정해진 드라마를 보던 전통적인 시청 방식은 급격히 사라지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한 단말기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¹ 그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장르는 웹드라마인데, 웹드라마는 기존 방송매체가 아닌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드라마를 지칭하며 한 편당 러닝타임은 약 15분을 채 넘기지 않는다.

최근 웹드라마 ‘에이틴 2’는 공개 2주 만에 누적 재생수 3천 500만뷰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고 플레이리스트가 제작한 ‘연플리 시즌4’는 6월 19일 오후 7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 공개된지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네이버 연령대별 급상승 검색어 10대 부문 1위에 올랐다.² 웹드라마는 웹 미디어 기기에 익숙한 1020세대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웹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로맨스임을 감안할 때, 웹드라마는 1020세대에게 연애편계에서 바람직한 여성상과 남성상을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제시한다. 웹드라마에서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재현하는가에 따라 10-20대들의 젠더 관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영향력이 높아져가는 웹드라마 속 성평등/성차별적인 사례를 분석했다.

웹드라마의 가장 큰 플랫폼인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중심으로 2018년 이후 출시된 웹드라마 중 1화 조회수 기준 상위 30편을 선별하였다.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압도적임을 고려해 두 플랫폼에 모두 업로드 된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 조회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채널명		프로그램명	채널명
1	고벤저스	고벤저스	9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3	콕TV
2	나의 개 같은 연애	뷰티학개론	10	사랑, 시간에 머물다	브릿지 TV
3	나의 중국 여자친구	아이쿠방송	11	악동탐정스 시즌2	컨버전스티비
4	다르게 적히는 연애	콕TV	12	알랑말랑	뷰티학개론
5	단지 너무 지루해서	콕TV	13	에이틴 1	플레이리스트
6	도시의 밤별	달핑스튜디오	14	에이틴 2	플레이리스트
7	두드림	브릿지 TV	15	연애는무슨연애	딩고스토리
8	뜻밖의 히어로즈	뜻밖의 히어로즈			

1 이기형 이동후 외 지음, 문화연구의 렌즈로 대중문화를 읽다, 한국방송학회 역음, p135
2 [문화계 뒷담화]10·20대사이 대세된 웹드라마' <서울경제>, 2019.06.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JXT969>

	프로그램명	채널명
16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	플레이리스트
17	오 여정	72초 TV
18	오피스워치 - 하라는 일은 안하고	콕TV
19	전지적 짝사랑 시점 3.5	콕TV
20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1	tvN D story
21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2	tvN D story

	프로그램명	채널명
22	짝사랑 전세역전	뷰티학개론
23	처음이라서	콕TV
24	최고의 엔딩	플레이리스트
25	통통한 연애	tvN D story
26	트리플썸	썸카페
27	필수연애교양	tvN D story
28	하늘 아래 같은 짝사랑은 없다	썸데이 컴퍼니
29	한입만 시즌1	플레이리스트
30	한입만 시즌2	플레이리스트

02 양적분석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44.1%(98명), 남성이 55.9%(124명)로 여성에 비해 남성 등장인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장인물을 세부적으로 주요인물과 보조인물로 나누어 주요인물은 극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인물은 비주기적으로 등장하지만 극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구분했다. 분석결과 주요인물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수가 비슷했지만(여성 64명, 남성 63명), 보조인물에서 남성(61명, 64.2%)이 여성(34명, 35.8%)에 비해 더 많이 등장했다.(표2 참조)

[표2] 등장인물 성비						
	전체 등장인물		주요인물		보조인물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	222	100.0	127	100.0	95	100.0
여성	98	44.1	64	50.4	34	35.8
남성	124	55.9	63	49.6	61	64.2

(2) 등장인물 성별 연령대

전체 등장인물의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그 뒤로는 10대와 30대 순이었다. 10대와 20대 등장인물이 전체 등장인물의 81.5%를 차지했는데, 이는 웹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이 10-2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3 참조)

[표3] 등장인물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름	합계
전체	73	108	28	3	2	8	222
여성 (성별내%)	33 (33.7%)	51 (52%)	12 (12.2%)	0	0	2 (2%)	98 (100%)
남성 (성별내%)	40 (32.3%)	57 (46%)	16 (12.9%)	3 (2.4%)	2 (1.6%)	6 (4.8%)	123 (100%)

(3) 등장인물 직업군

30개 웹드라마의 등장인물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학생(직업군㉔)이 133명으로 전체 59.9%를 차지해 웹드라마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회사원(평직원)(직업군④)이 21명으로 전체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회 초년생인 인턴 직급을 포함한 결과 값이다. 성별에 따라 직업군에 차이를 보이는 TV 드라마와는 달리³ 웹드라마에서는 성별에 따른 직업군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표4 참조)

[표4]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4	7	8	9	11	15	17	20	22
여성	0	2	5	10	1	1	0	0	0	1	1	1
남성	1	5	7	11	4	1	2	1	1	3	0	1
계	1	7	12	21	5	2	2	1	1	4	1	2
직업 번호	23	24	26	27	30	37	39	42	44	46	99	계
여성	3	1	1	0	63	1	1	1	1	4	0	98
남성	4	0	2	2	70	0	1	1	0	5	2	124
계	7	1	3	2	133	1	2	2	1	9	2	222

직업분류번호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튜어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㊼ 기타					

(4)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14건, 성차별적 내용은 42건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 내용 중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1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외모지상주의 조장(14건), 성희롱·성폭력을 정당화(8건)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 평 등 적 내 용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대안성 ⁴	14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5 (35.7%)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8 (19.0%)
			외모지상주의 조장	14 (33.3%)
			기타	5 (12.0%)
	합계	14	합계	42

3 2017년 9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9
4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03
질적분석

1) 성평등적 내용

웹드라마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며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TV 드라마에 비해 변화하는 시대상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웹드라마에서는 그 장점을 살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콘텐츠들이 눈에 띄었다.

tvN D story의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1,2>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일상 속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미투 운동까지 적극적으로 다룬다. 대학 신입생인 시즌1 주인공은 교수의 성희롱, 술자리에서 신입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남자 선배들의 성적 대상화, 카톡방 성희롱 등을 겪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내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행동들에 대해 화를 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시즌2의 직장인 주인공은 드라마 초반에는 ‘개 변태짓’이라고 넘어갔던 부장의 성희롱에 정면으로 “방금 하신 말씀은 성희롱입니다”라고 맞서고 극이 진행될수록 직장 내 미투 운동을 주도해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위계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뤄지지 못한 채 일부 개인을 ‘악’으로 몰고 가는 결말은 아쉽지만, 대학생과 직장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1> — tvN D story



또한 tvN D story의 <통통한 연애>의 주인공은 대중문화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통통한 10대’ 공수린이다. 공수린은 ‘예쁜’ 여주인공의 웃긴 절친 또는 살 빼고 예뻐지는 성차별적인 플롯의 주인공이 아닌, ‘통통한 여학생’이 겪는 일상적인 폭력들을 극복해나가는 주체적인 캐릭터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 공수린 뿐 아니라 공수린 주변 인물들 또한 일상적인 차별들을 겪는다. 임구슬은 쌍꺼풀이 없는 본인의 눈을, 윤공주는 성형한 얼굴을, 남성 등장인물은 작은 키를 콤플렉스로 여겨 괴로워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인물들은 서로를 돕고 응원하며 자신의 콤플렉스를 받아들인다. 이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외모강박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을 제시한 성평등적인 사례로 보인다.



2) 성차별적 내용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한 30편의 웹드라마 중 1편(악동탐정스 시즌2)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맨스가 주요 장르였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로맨스 서사가 웹드라마의 주요 플롯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웹드라마가 로맨스를 재현하는 방식이 기존 TV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⁵들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고선희는 2018년 연구에서 기존의 텔레비전 드라마 클리셰가 웹드라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뻔한 스토리와 익숙한 장면 설정 등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때 비판받았던 그것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방식과 웹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만남으로써 그 나름의 미학을 형성하고 있다⁶ 고 분석했다. 따라서 질적 분석에서는 웹드라마가 기존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들을 얼마나 답습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소심하고 덩벙거리는 여성이 사랑받는 웹드라마 속 로맨스

<트리플 씬>의 여주인공 이세희는 '쌈'을 타는 다른 남자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간다. 약속을 먼저 청하는 것은 늘 남자 등장인물이고, 여주인공은 남성의 제안이 있을 경우만 행동한다. <단지 너무 지루해서>의 주인공인 단지(여)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서툴고, 남자 동료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 인물의 전형이다. <뷰티학개론>은 덩벙거리고 칠칠치 못한 유소미(여)와, 그런 유소미에게 장난을 치면서도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그를 보호해주고 그 모습을 귀여워하는 남동하(남), 둘의 로맨스가 주요 내용이다.



5 클리셰란 이전에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발상이었으나, 현재는 생각없이 반복하게 반복되는 표현 개념을 의미한다.
6 고선희, <웹드라마 클리셰에 대한 문화론적 탐구 글로벌 웹드라마 드라마 월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p403-404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에서 벗어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진, 흔히 '걸크러쉬' 캐릭터로 소비되는 여성들 또한 웹드라마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캐릭터들조차 연애할 때는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 한재인이 대표적이다. 한재인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독설을 날리기도,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캐릭터다. 친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털털한 모습을 보이지만 애인 앞에서는 일부러 본인의 원래 모습을 숨기고 잘 치던 볼링도 일부러 못 치는 척, 술도 못 마시는 척을 한다. 한재인은 애인 앞에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척'을 잘 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남자친구의 '기'를 살려주기 위함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아무 남자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한재인의 고민에서, 이성애적 연애평계에서 여성에게는 연약하고 순수 같은 귀여움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보인다.



인기 웹드라마 <에이틴 1>의 김하나와 도하나는 이름이 같고 서로 친구인 만큼 자주 비교 당하는데, '모나지 않고 순종적인' 성격 때문에 남자들은 김하나를 더 좋아한다. 이와 달리 도하나는 언제나 당당한 성격으로 인해 '예쁘지만 기가 세 보인다'고 표현되면서 남자들에게는 회피의 대상이 된다. 기가 세 보인다는 표현은 '남성'에게 저주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을 의미하며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은 채 강단 있거나 고집이 있을 때 사용하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다.

(2) 자꾸만 위험에 빠지는 여성, 갈등상황 속 문제해결자로서의 남성

장난만 치고 무뚝뚝했던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은 위험에 빠진 여주인공을 적극적으로 구해주는 순간이다. 웹드라마는 여성의 무력감을 강조하기 위해 폭력적인 장면에 여주인공을 노출시키고, 무력한 여성을 남성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로맨스로 소비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맺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남성을 주체적인 구원자의 위치로, 여성을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의 위치로 그려낸다.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에는 호프집 알바를 하는 김도영(여)을 상대로 한 남성 손님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김도영은 거부하며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순간 박준모(남)가 등장해 "그만하시죠, 싫다잖아요"라는 말

로 상황을 정리한다. 이 장면 속 객준모는 갈등상황 속 문제 해결자로서 등장하지만, 김도영은 본인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의존적인 이미지로 존재한다.

<나의 개 같은 연애> ————— 뷰티학개론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3> ————— 폭TV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3>에서는 여성이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감 관계에 있는 남성이 찾아와 여성을 문제 상황에서 구해준다. <나의 개 같은 연애>에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전 남자친구가 여주인공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여주인공의 손을 동의 없이 잡아끌려고 하자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 그 손을 막는다. 이 두 상황에서 여주인공이 데이트폭력에서 느꼈을 공포, 두려움 등은 삭제되고 오로지 남자 주인공(썸남)의 구원자적 위치만 강조된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여주인공들이 남주인공에게 의존하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 전 남자친구들의 충동적인 행동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썸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왜 로맨스가 시작되기 위해서 여성은 위협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남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왜 로맨스의 시작으로 소비되는가?



<전지적 짝사랑 시점 3.5> ————— 폭TV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여성은 자주 다치고, 남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전지적 짝사랑 시점 3.5>에서 연정(여)이 카페 스티기를 만졌다가 손을 데이자 기성(남)은 다소 과하게 손목을 잡아채며 찬물로 열을 식혀준다. 기성은 걱정하는 마음에 연정의 손을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둘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례한 동작이다. 더불어 굳이 기성이 없더라도 여성 캐릭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임에도 기성의 도움을 강조해 이를 기성이 연정에게 마음을 드러낸 첫 장면으로 그려냈다.

(3) #그건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닌 폭력입니다.

2016년 IZE 매거진에서는 ‘#더이상_설레지_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드라마 속 로맨스의 폭력적 클리셰들을 다루었다.⁷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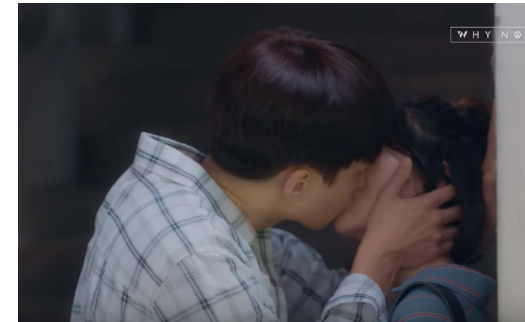
7 「국제앰네스티X아이즈 02. #더이상_설레지_않습니다」 <IZE>, <http://m.ize.co.kr/view.html?no=2016080801027290112>

지로 잡아끌기, 벽에 밀치기, 무턱대고 찾아가기, 강제 기습 키스 등의 남주인공 행동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8-2019년 웹드라마에서 이 같은 상황이 설레는 장면으로 연출되었다.



<다르게 적히는 연애> ————— 폭TV

<다르게 적히는 연애>에서 장서경(여)은 늦은 밤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 병원을 찾던 중 황찬성(남)의 동물병원에 들어간다. 장서경이 아픈 강아지를 보며 지나치게 불안해하자 황찬성은 그녀의 팔을 쓰다듬으며 안심하라고 한다. 이 장면은 불안한 장서경의 마음을 든직하고 신뢰감 있는 황찬성이 보듬어주는 장면으로 묘사되면서, 여 주인공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포인트로 그려졌다. 하지만 현실에서 처음 만난 남의사가 여성의 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이 긍정적으로 그려질 때, 불쾌하고 무례한 행위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환상이 시청자들에게 심어질 수 있다.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3> ————— 폭TV

2016년 데이트 폭력의 사례로 논란이 되었던 <또 오해영>의 벽치기 키스가 웹드라마에서 다시 한 번 로맨스로 소비되었다.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3>에서 남성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했으나 여성이 그 호감을 거절한 상태에서 여성의 전 남친이 찾아오자 남성은 흥분한다. 그리고 핫김에 여성을 벽에 밀치고 기습키스하고 그 키스 이후에도 여성은 남성의 마음을 거절하지만 남성은 계속 여성을 설득하려 든다.

<전지적 짝사랑 시점 3.5> ————— 폭TV



폭력을 폭력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본인의 행동이 상대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전지적 짝사랑 시점 3.5>에서 기성(남)은 술에 취한 연정(여)을 천천히 따라가고, 연정은 뒤돌아서 왜 따라 오냐고 묻는다. 술에 취한 자신을 어떤 남성이 몰래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기성은 '그 표정은 뭘까? 걱정을 해줘도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 거야?'라고 반문한다. '술에 취한 여자-그 뒤를 조용히 지켜주는 남자'의 구도를 로맨스로 소비하는 방식에 익숙한 기성과 같은 시청자는 그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지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4) 안경 벗고 살 빼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거야

이번 모니터링 결과, 10-20대가 81.5%를 차지하고, 등장인물의 59.9%가 학생 역할로 등장했다. 기존 TV 드라마에서는 자본, 주 시청자 층의 취향 등의 이유로 주변부로 밀려난 '청소년의 일상'이 웹드라마의 중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원물 드라마란 학교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드라마를 일컫는데, TV 속 학원물 드라마는 2007년 <달려라 고등어>과 2010년 <정글피쉬2>이후 매년 1~2편씩 제작되었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구색용에 지나지 않았다.⁸ 그렇다면 웹드라마 속 1020대 학생들의 일상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⁹(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오늘날 학교 안 여성의 외모를 둘러싼 성차별적인 젠더 정치학이 학교와 교실에 지배적이며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일상적으로 하고, 여학생들은 예쁘고 날씬한 외모를 갖는 것이 여성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한다. 웹드라마 속 여주인공들 또한 외모를 성실히 꾸며야만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외모지상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에이틴 1> ————— 플레이리스트



과거 김조연(좌)에서 변신한 김하나(우)의 모습



<에이틴 1>의 김조연은 소심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학생이었다가 살을 빼고, 안경을 벗고, 메이크업을 한 후에야 로맨스 서사의 주인공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소심한 김조연은 당당하고 예쁜 도하나를 부러워하면서 도하나처럼 되기 위해 이름도 '하나'로 개명하고 따라한다. 김조연은 흔해 빠진 '조연'이 아닌 자신도 단 '하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곧 살을 빼거나 예뻐지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김조연이 김하나로 변신했을 때 드러나는 변화는 '안경'을 벗고, '살'을 빼고, '메이크업'을 하고,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이었다. 변화들은 '못생긴' 김조연에서 '예쁜' 김하나로 변신한 과정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못생기고 소심한 여성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뻐져야'한다는 강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김하나가 과거 김조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김하나의 친구들은 김조연으로써도 충분히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닌, 그런 선택을 내린 김하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전개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미덕이라는 외모지상주의를 답습할 뿐이다.

8 문성영 「웹으로의 이동과 확장, 최근 학원물 드라마의 경향」 한국국악예술연구 62, 2018, p101
9 연구책임자 이해정, 「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2018, p254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 ————— 플레이리스트



<한입만 시즌2> ————— 플레이리스트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는 자원이 된다.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의 정지원은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한다.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복학 첫날 정지원은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 하얀 원피스, 구두, 긴 생머리로 등장하고 카메라는 이러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강조한다. 정지원의 '예쁨'은 아무도 정지원을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여성이 안경을 쓰고, 화장하지 않고, 집에서 입는 옷을 입을 경우에는 남성에게 거절당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트리플 씬> ————— 씬카페



<고벤져스> ————— 고벤져스



웹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의 외모 획일화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결과 <통통한 연애>의 주인공들을 제외하고 웹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들은 마른 몸의 형태, 짧은 치마 길이, 안경을 쓰지 않음 등 비슷한 외모를 보였다. 남주인공들의 외모와 비교하면 여주인공들의 외모 획일화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다양하게 편안한 옷을 상황에 따라 매치하거나 안경을 쓴 경우들도 있었다.

2019년 6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개제된 웹드라마 30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14건의 성평등적인 사례와 42건의 성차별적인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성평등 사례의 경우 웹드라마가 기존 방송국 프로그램에 비해 실험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 맞는 ‘페미니즘’ 이슈들을 전면적으로 다룬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통통한 연애>와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1,2>는 대표적인 예시로 외모지상주의와 대학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전면적으로 다뤘다. 고령적인 성역할에서 탈피한 캐릭터들의 등장 또한 긍정적이었는데 애교가 많고, 요리와 화장을 좋아하는 남성 캐릭터를 주요 혹은 보조 캐릭터 남성인물로 내세움으로써 기존의 남성성에서 탈피한 인물들을 제시했다.

<단지 너무 지루해서> ————— 콕TV



<통통한 연애> ————— tvN D story



10-20대가 81.5%를 차지하고, 등장인물의 59.9%가 학생 역할로 등장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웹드라마가 ‘청소년의 일상’을 중심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학교 내 외모지상주의와 외모혐오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웹드라마는 문제의식 없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에이틴 1>의 김조연은 소심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학생이었다가 살을 빼고, 안경을 벗고, 메이크업을 한 후에야 로맨스 서사의 주인공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또한 웹드라마의 성차별적인 사례들은 전통적인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극적인 여주인공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남주인공을 문제해결자로서 등장시키는 내용이 로맨스의 주요 서사였는데 이는 수동적인 여성-적극적인 남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을 고착화한다. 더불어 남성의 능동성/적극성과 여성의 수동성이 강조될 때, 남성의 여성을 향한 폭력은 로맨스로 미화된다. 남성이 여성의 손을 거세게 잡아채거나,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츄데레’ 남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설레는 포인트로 소비되는 사례들이 웹드라마 속에서 반복되었다.

로맨스 속 성차별적인 클리셰가 반복될 때, 털털하고 직설적인 본인의 성격이 이상적인 수동적이고 귀여운 여성상에 맞지 않다는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3>의 한재인의 고민은 당연하다. 남성 애인 앞에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척’을 할 수 밖에 없는 한재인의 고민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단, 로맨스에서 다양한 여성 인물이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스컬리 효과는 대중문화 페미니즘 비평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이다. 스컬리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뒤 2016년 다시 후속편이 나온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X파일>의 여자 주인공이다. 물리학을 공부한 뒤 법의학을 전공한 박사이자 FBI 요원인 그녀의 캐릭터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연구에서, <X파일>을 여덟 시리즈 이상 본 열성 시청자들은 그보다 적게 본 응답자들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이공계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내 딸이나 손녀가 이공계 직업을 갖도록 격려하겠다”고 답했다.¹⁰ 이는 대중문화 속 여성 재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행히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1,2> <통통한 연애>와 같은 작품에서 다양한 여성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로맨스가 등장할 때, 스컬리 효과에서 보듯이 10대 여성들은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10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TV 드라마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 시도가 가능한 웹드라마 이기에 앞으로의 성평등한 캐릭터 등장이 더욱 기대된다.

10 정은령, “[공감]이효리는 57kg이다”, 경향신문, 2019년 2월 26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262031005

1) 성평등적 내용

(1)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사례

채널/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플레이리스트 <에이틴 1>	남학생들이 김하나(여)와 도하나(여) 중 누가 더 예쁜지 비교하면서 “검은 머리는 기가 세보인다”며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하민(남)은 뒤에서 남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뒷담화하던 남자들은 사과함. 그러자 도 하나는 왜 하민한테 사과를 하나며 자신한테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검은 머리’가 아니라 도하나이며, 남자들에게 “너도 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받아침. 기존 드라마에서 의도치 않게 뒷담화를 듣게 된 여성 주인공은 상처를 받거나 숨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도 하나는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나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모두 표출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임.	
tvN D story <통통한 연애>	비만, 화장, 성형이라는 주제로 여성 캐릭터 세 명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각 인물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비중 있게 다루며 여성에게 강요되는 외모 꾸미기에 대한 압박을 진지하게 그려냄.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묘사함으로써 외모 코르셋에 대한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고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함. 더불어 문제 해결을 그리는 방식 또한 적절함.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플레이리스트 <한입만 시즌2>	주우경은 지나가는 길에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데이트 폭력’이니 관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함.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하지 않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타인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극 중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미화하지 않은 채 정확히 지적함.	
tvN D story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2>	유빛나가 인턴 생활을 마치며 회사 게시판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고발하자 동료들의 피해 경험 고백이 잇달아 올라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인 ‘미투’ 운동을 왜곡하지 않은 채 긍정적으로 그려냄.	
tvN D story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2>	부장은 대리에게 미팅에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여자 인턴 대신 남자 인턴을 데리고 갈 것을 권하며 “어차피 여자들은 입사에 불리한 거 알잖아. 진짜 우리 직원이 될 친구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나중에 흥대리 편한 거야.”라고 발언함. 이 장면은 여성이 아무리 노력에도 상사의 성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남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됨. 후에 대리가 부장에게 그건 차별이라고 화를 내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 또한 다룸.	
tvN D story <통통한 연애>	여성 캐릭터는 ‘쌍얼’에 관한 놀림을, 남성 캐릭터는 ‘키’에 관한 놀림을 받아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 본인이 놀림을 받은 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인물은 여성인 친구에게는 “미안해. 내가 전에 너 코만 하면 예쁠 것 같다 한 거, 살만 쪼면 예쁠 것 같다 한 거.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라고 말하고 남성인 친구에게도 “키 작다고 놀려서 미안해”라며 사과하는 장면을 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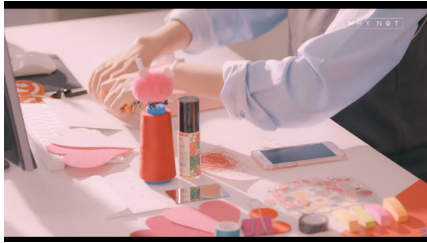
(2)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캐릭터들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컨버전스 티비 <악동탐정스 시즌2>	악동탐정스 시즌2의 주인공 옥진경은 형사로써 사건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에게 “언니 똑바로 봐. 나 경찰이야. 너 신변 내가 책임져. 너 위험하게 안 만들게. 그러니까 안심해.”라고 말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줌. 이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형사 직업군에서 벗어났으며, 여성을 돕는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함.	
tvN D story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2>	전 남자친구가 또 찾아올까 봐 걱정되니 자신이 출근길을 데려다주겠다고 하는 조영식에게 최보영은 “보호해줄 필요 없어. 난 내가 지킬게.”라고 대답함. 이후 “지켜주지 말고 응원해줘”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며 여성을 남성에게 보호받는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	
뷰티학개론 <짝사랑 전세역전>	유소라-남동윤의 연애 형태는 기존의 하이트인 로맨스와는 다름. 유소라는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애인에게 구속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연애 도중에 다른 새로운 남성에게 이끌림을 느끼기도 함. 기존 로맨스 속 관계 의존적인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연애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캐릭터를 보여줌.	
플레이리스트 <최고의 엔딩>	프로포즈는 남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이 반지를 건네고 남성에게 끼워주는 장면.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달팽스튜디오 <도시의 밤, 별>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남직원이 화장품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시선을 걱정하자, ‘부모님도 장훈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인정해 주실거예요!’라고 조언하며 부모님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말라고 조언함.	
콕TV <단지 너무 지루해서>	극 중 근영은 외모 관리나 패션 관심이 많고, 남자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는 등 전형적인 남성 인물의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	
tvN D story <통통한 연애>	여주인공보다 남주인공의 캐릭터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여성이 남성보다 애교가 많아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복함.	
tvN D story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2>	서민준(남)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유빛나의 분홍색 가방을 보며 “빛나씨, 가방 색깔 예쁜데요.”라고 말함. 서민준의 분홍색 텀블러와 와이셔츠가 클로즈업되며 “민준 선배는 핑크색을 좋아해.”라는 유빛나의 나레이션이 나옴. 서민준은 자신이 건네준 간식을 먹은 유빛나가 “이거 어디서 샀어요? 너무 맛있는데?”하자 “만든 건데.”라고 대답함. 분홍색을 좋아하고 요리를 잘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콕티비 <오피스워치-하라는 일은 안하고>	김지현(여)의 10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분홍색으로 도배된 문구용품 등이 등장해 여성은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함.	
컨버전스 티비 <악동탐정스 시즌2>	경찰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극중 유일한 여성 경찰인 옥진경만 허리 라인을 부각시키는 상의와 치마를 경찰복으로 입고 있음. 이는 경찰이라는 옥진경의 직업보다 여성이라는 성별을 더 강조하는 성차별적인 요소임.	
tvN D story <필수연애교양>	썸 관계의 남성과 1박 2일 여행 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여성. 거절의 이유로 '너무 빨라서 쉽게 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함. 이 같은 발언은 여성은 순결해야 하며, 성관계를 빠르게 가지는 여성은 '쉬운' 여성이라는 성녀-창녀 이분법을 고착화함.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성욕은 배제된 채 남성이 어떻게 여성을 바라볼 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딩고스토리 <연애는 무슨 연애>	금사랑은 "데이트 안 해서 남는 돈으로 나한테 투자도 좀 하고"라고 말하며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러 감. 금사랑이 파마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자 친구들은 카톡으로 "빨리 남자 꼬시러 가ㅋㅋㅋ"라고 반응. 이는 여성이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함.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N D story <필수연애교양>	차주원이 명품을 착용하고 좋은 오피스텔에 산다는 이유로 여자 셋이 모여서 험담을 하는 장면. '여성은 질투가 많다'거나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여성혐오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썸카페 <트리플썸>	깃속말로 "혹시 그날이야?"라고 말하는 예수아. 생리를 '그날'이라고 바꿔 부르고 깃속말을 함으로써 생리가 남성들에게는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내제되어 있음.	
콕TV <트리플썸>	"감기예요?"라고 묻는 장서경의 말에 "에이 남잔데요 뭘"이라고 답하는 황찬성의 모습이 등장. 대사를 통해 남성은 강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함.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딩고스토리 <연애는 무슨 연애>	<연애는 무슨 연애>의 남자주인공 이섬은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여자주인공인 금사랑과의 관계가 끝났음에도 술에 취해 여주인공 집에 찾아가 "나 너 좋아해 정말로", "너도 나 좋아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껴안음.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강압적으로 여성에게 위력을 행하는 것은 로맨스가 아닌 폭력임.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당한 여성이 어떤 공포감을 느낄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장면을 로맨스로 다룰 때 시청자들은 폭력을 폭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됨.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콕TV <처음이라서>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수인에게 서운한 성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사람들은 ‘몸으로 설득하라’고 조언함. 성우는 조언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퇴근한 수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힘.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행위는 부부사이더라도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극 중에서는 설레는 장면으로 묘사되었음.	
콕TV <단지 너무 지루해서>	허락 없는 신체 촬영에 대해 장난스럽게 “변태예요?”라고 묻으며, 사회적 문제인 불법촬영을 가볍게 소비함.	
달핑스튜디오 <도시의 밤, 별>	“왜 (남주인공이) 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냐”고 묻는 질문에 안모리는 “언니가 밤중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게 생겼었나 보지”라고 말함.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여성의 외모, 옷차림, 행동 탓으로 여겨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여성혐오 담론 형성에 기여함.	
똥밖의 히어로즈 <똥밖의 히어로즈>	등장인물들이 아침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네 사람이 동거하는 집 근처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옴. 그러자 민형사는 “아무튼 문단속 잘해야 해. 밤이나 낮이나. 특히 미모의 여자가 집주인이면 더 위험하니까.”라고 말함. 위 사례(도시의 밤, 별)와 마찬가지로, 범죄나 폭력의 원인을 여성이 제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플레이리스트 <한입만 시즌1>	수지는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수지의 친구들 역시 마른 몸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것을 당연히 여김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플레이리스트 <에이틴 1>	김조연은 당당하고 예쁜 도하나를 부러워하면서 도하나처럼 되기 위해 이름도 ‘하나’로 개명하고 따라함. 김조연은 흔해 빠진 ‘조연’이 아닌 자신도 단 ‘하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실제로 김조연이 김하나로 변신했을 때 드러나는 변화는 ‘안경’을 벗고, ‘살’을 빼고, ‘메이크업’을 하고,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 이 과정은 ‘못생긴’ 김조연에서 ‘예쁜’ 김하나로 변신한 과정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못생기고 소심한 여성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뻐져야’한다는 강박을 조장함	
콕TV <전지적 짝사랑 시즌 3.5>	인후와의 데이트를 위해 한껏 꾸미고 나온 헤지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고 묻자 회현은 ‘아줌마 같다’고 대답. 극중 ‘아줌마 같다’라는 발언은 ‘촌스럽다’의 의미를 지닌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뤄짐. 아줌마 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성에게 젊음이 미덕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플레이리스트 <최고의 엔딩>	민채가 구두를 살지 고민하고 있자 한 고등학생이 ‘아줌마가 신기에는 조금 영하지 않나?’라는 말함. 이는 ‘아줌마’ 즉 나이든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여성에게 젊음을 강조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답습한 발언임.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콕TV <처음이라서>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털은 왜 이렇게 많 이 떨어지는 걸까요?'라는 남성의 대사는 여 성에 대한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전제한 발 언임. 여성에게 제모, 체중 등의 외모 잣대가 더 엄격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꾸 밈노동을 자연시하며, 동시에 여성을 예쁜/ 못생긴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함.	
콕TV <전지적 짝사랑 시점 3.5>	더운 여름날 두 남성 인물은 덥다고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지만 여성 인물은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땀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 하는 장면. 땀에 젖으면 화장이 지워지거나 옷에 땀자국 등이 남기 때문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 강박을 더 크게 느끼는 현실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시함.	
뿔밖의 히어로즈 <뿔밖의 히어로즈>	민수호는 배준영이 수지누나가 예뻐서 좋 다는 말을 듣고 상심한 이윤지에게 “너도 이뻐. 이쁘다고. 너도. 수지누나만 이쁜 거 아니고 너도 이뻐.” 라고 말함. 타인의 외모 를 평가하는 대사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드 라마 속에서는 설레는 장면으로 묘사됨.	
플레이리스트 <에이틴 2>	농구부 친구들과리 저녁을 먹다가 남시우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여기서 시 우의 친구가 “남시우 여친 개예뻐.”라고 말하 고 남시우는 그 발언을 자랑스러워 함.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을 문제 의식 없이 내보냄.	
썸데이 컴퍼니 <하늘 아래 같은 짝사랑은 없다>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에게 “넌 다리도 굵 은 게 맨다리로 다니냐”라고 무례하게 발 언. 불편한 외모평가를 맨 다리로 다니는 것을 걱정하는 남 주인공의 '츄네레' 매력 으로 포장함.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플레이리스트 <에이틴 2>	여보람과 김하나가 같이 찍힌 방송이 나가 고 난 후 여보람과 김하나의 외모를 비교하 는 댓글이 달림. 등장인물을 외모로만 평가 하는 외모지상주의 시선을 드라마에서는 문제의식 없이 그려냄.	
썸카페 <트리플썸>	이세희는 정다현을 처음 본 순간, 정다현의 얼굴을 눈, 코, 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함. 이는 사람의 외모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 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함.	

(4) 기타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컨버전스 티비 <악동탐정스 시즌2>	남성 인물을 소개할 때 '남'탐정이라는 식 의 성별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여 소개하지 않는 반면 옥진경을 소개할 땐 '여탐정'으 로 성별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여 소개함. 이는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성 별로 표현.	 
브릿지TV <사랑, 시간에 머물다>	조감독이 촬영 중 대기하고 있는 유하리(오 하영)의 의자를 가리키며 “야! 여배우가 의자 가 이게 뭐야! 더 편한 거 없어, 편한 거?”라 고 하며 여성에게만 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 는 관행을 답습함.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썸카페 <트리플썸>	이세희와 정다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서 인재가 이세희에게 “옆엔 누구야? 남자친 구?”라고 말함. 이는 남녀 사이를 철저히 이 성애적 관계로만 환원하며 다양한 연애 지 향성을 배제함.	
tvN D story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2>	평소 자주 싸우는 친구관계인 여성과 남성 을 지켜보던 최보영은 “마지막 날까지 싸우 는 거야? 그만들 좀 싸워. 너네 자꾸 싸우다 가 정든다?”라고 말해 이성애 중심적 사고 를 보여줌.	
콕TV <단지 너무 지루해서>	‘단지 너무 지루해서’의 주인공 단지는 여자와 남자 사이에 친구 관계는 없다고 믿으 며, 유난히 친밀한 팀 내 직원들의 관계를 분석해 팀 내 연애 중인 직원을 알아내고 자 함. 이 같은 이성애 중심주의는 이성애 관계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동성애, 무성애 와 같은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부 정.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웹드라마)

- 1. 모니터 이름 :
- 2. 매체명 :
- 3. 채널명 :
- 4. 프로그램명 :
- 5. 등장인물 분석

5-1. 인물명(배우명)	
5-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5-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캐릭터 이미지+ 스토리로 유추)
5-4. 역할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텐터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㊼ 기타
5-5. 역할비중	① 주요인물 ② 보조인물

6. 내용분석

① 캐릭터 분석

② 스토리분석

③ 장면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채널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성차별적 내용

구분	채널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기타			

1. 성평등적내용

-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성차별적내용

- 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
 -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 방송은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남성 의존적 성향 강조하는가
 -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③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방송은 특정 성별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④ 외모지상주의 조장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⑤ 성적대상화
 - 방송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⑥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

- 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발행일 | 2019년 7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황경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문 |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